

포천문학 제10집 출판기념회 성황

포천문인협회, 시화전과 시낭송회도 개최

포천문인협회(회장 이종희)는 9월24일 오후 2시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문학 제10집 출판기념회와 시화전 및 시낭송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수와 국제펜클럽 부이사장과 인근 지역 문인협회를 비롯해 김영우 국회의원, 이종호 포천시의회위원장, 이우형 경기도의원, 지역위원장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류백열 운영위원장, 이만규 포천문화원장과 이희용 포천예총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날 이종호 포천문인협회 회장은 내빈들의 많은 참석에 감사의 뜻을 전할 한 수 "문인은 그 시대와 그 땅의 양심이다. 양심이라는 어려운 아들이라든 밝혀낼 수 있

는 등불이어야 한다"며 "이번에 출판된 포천문학 제10집이 독자들에게 행복의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바라며 작가들에게는 이 책이 후세에까지 자랑스런 책으로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와 국제펜클럽 부이사장은 "오늘 출판기념회를 통해 이 고장이 인문학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1년에 1권이 아닌 12권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축하해주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서울 어느 서점입구에 게시된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책은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포천문학이 포천시민들 마음의 양식이 될



포천문인협회는 9월24일 오후 2시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문학 제10집 출판기념회와 시화전 및 시낭송회를 개최했다.

수 있도록 좋은 책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장은 "시와 그림이 1년에 딱 한번 만나는 시화전은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칠월칠석날처럼 느껴진다"며 "오늘 출판기념회를 통해 포천문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규 포천문화원장은 "포천문

인협회가 많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감사와 격려를 표하며 포천문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문인협회는 9월24일부터 27일까지 시화전을 개최했으며 9월26일에는 포천시 관내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천사랑 백일장을 개최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남북화합과 國泰民安 기원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 포천초대미당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단장 이희용)은 10월3일 오후3시부터 포천시 가산면 고인동공원에서 포천 초대미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포천시민과 예술인

이 함께 소원을 빌고 하늘에 그 마음을 옮기고자 솟대를 세우는 지역의 작은 축제로 나라를 걱정하고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하며 남북화합과 國泰民安을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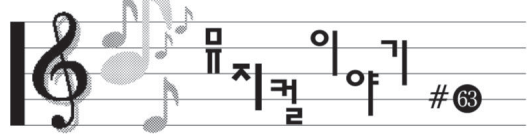
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행사는 기원제(포천메나리)에 이어 무용, 경기민요, 마당극, 풍물놀이, 풍패리, 사물놀이 공연순으로 무대가 마련되며 풍패리 배우기, 민대떡 시식회 등 참여마당도 마련된다.

이희용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행사로 그동안 우리고장 포천에 소외된 곳을 찾아가 저마

다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며 마음과 정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쳐 온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이 마련하는 한마당에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당일 추첨번호표를 배부후 추첨하여 푸짐한 선물을 전달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시대를 초월한 전설적인 이름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1935~1977)

오늘날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이름은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엘비스는 세계적인 대중가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엘비스가 뮤지컬 영화배우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날 '로큰 롤의 제왕(The King of Rock 'n' Roll)'으로 일컬어지는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는 먼저 가수로 출발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뮤지컬 영화배우로도 성공한 세계적인 스타였다.

물론 엘비스에게 있어서 영화의 스크린이라는 매개체는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기도 할뿐 아니라 보여주기도 했던 훌륭한 홍보 수단이기도 했다. 요즘 같으면 뮤직 비디오의 전형이라고 할까. 당시 엘비스의 노래들은 싱글 앨범으로 히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먼저 영화의 스크린을 통해 발표되어 널리 알려지게 된 사례도 많았다. 특이한 의상과 머리모양 그리고 색다른 외모로 청춘의 이상으로 자리매김하며 로큰롤의 황제로 오른 엘비스는 영화사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오늘날에는 일반화가 되어있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었던 일이다. 특히 20세기 폭스 영화사나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MGM에게 빼앗겼던 뮤지컬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엘비스와 계약을 체결한 후 엘비스의 스타성을 이용한 영화들을 양산해냈다. 그 결과 영화의 완성도는 매우 떨어졌지만 흥행 면에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

었다.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감미로운 노래 가락과 함께 엘비스의 색시하고도 특이한 외모였다. 이것이 또한 그의 스크린 페르소나이기도 했는데 엘비스와 그의 뮤지컬 영화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영화를 위해 작곡한 음악들도 싱글 앨범으로 판매되어 역시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음반판매고를 기록했다.

엘비스는 1960년대까지 무려 31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특히 전성기에는 자동화된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영화를 한꺼번에 몰아서 찍기도 했다. 물론 B급 정도의 뮤지컬 영화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그런 엘비스의 영화들을 관객들은 개의치 않고 즐겼으며 스크린에서 엘비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열광했다.

특히 10대들이 관객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영화의 새로운 관객층을 개척한 공로와 함께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하이틴 시장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화들은 1960년대까지도 지속되었고 성공을 거두었는데 영화의 히트와 싱글앨범의 히트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엘비스는 영화와 음악의 공존이 가능함을 입증시켜 주었다.

영화가 성공하면 그의 음반도 역시 음반시장에서 불타나게 팔려나갔는데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세계최고의 대중가수로 그리고 영화배우로 누구보다도 탄탄대로의 성공을 구가했다. 1960년대에는 잠시 영국 출신의 그룹 비틀즈(The Beatles)에 의해 그의

대중가수로서의 아성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엘비스의 카리스마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비틀즈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21세기인 지금도 그의 음악들을 모아 만든 뮤지컬이 만들어질 정도로 아직까지도 엘비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엘비스의 노래를 듣고 그의 영화를 보며 그를 추모하는 각종행사를 열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엘비스 프레슬리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죽은 사람들(Dead Celebrities The Top Earners)'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2001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4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엘비스는 2006년에 잠깐 2위에 머물기도 했으나 2007년까지 줄곧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 1977년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후 2007년까지 매년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씩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 순위와 액수는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John Lennon, 1940~1980)을 능가하는 것으로 지금도 엘비스의 인기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비틀즈를 넘어선다고 있다. 증거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직도 존 레논 보다는 엘비스의 음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는 것이며 각종 광고나 이벤트에 엘비스의 페르소나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의 영화 31편중 '러브 미 텐

더(Love Me Tender, 1956)», '러빙 유(Loving You, 1957)», '제일 하우스 록(Jail House Rock, 1957)» 등이 싱글앨범보다 먼저 영화로 만들어져 세계적으로 히트한 작품인데 지금도 비디오나 DVD로 발매되고 있다. 물론 싱글앨범으로 히트한 곡들도 많으며 '아 유 론섬 투나잇(Are you lonesome tonight)' 등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곡이다.

최근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수로 출발해서 인기를 얻은 후 영화나 TV 등으로 옮겨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졌다. 가수로 성공한 아이돌 스타들을 연예계로 끌어들이는 것은 요즘의 분위기에서는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195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가수들은 가창력과 프로의식에 있어서 엘비스만큼의 스타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단순히 배우나 연예인으로 가는 출발선상에서 가수를 먼저 선택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전설적인 대중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시대를 초월해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韓國의 선비정신 · 115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독립을 위하여



리주홍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만중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서당에 다니며 공부한 것이 전부였다. 소년시절 서재필이 미국에서 돌아와 만민공동회를 창설하자 안창호도 여기에 참가하면서 조국의 독립과 계몽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

당시 그는 부인과 약혼하였는데 교육만이 독립의 길이라 생각하여 혼인까지 미루며 미국으로 향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길에서 한국인 두 사람이 상투를 틀어주고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알고 보니 중국인들을 상대로 인권을 파는 한국인들이었는데 서로 팔매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대낮에 싸움질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안창호는 동포들을 향해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그를 두 사람의 안창호는 뜻이 맞는 세 명의 친구와 함께 빗자루를 들고 한국인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집 안을 청소해주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동포들도 하나둘 그들을 환영하기 시작했다.

안창호는 토목공사 인부로 일하는 동안 부인은 상백래로 연명하며 아이들을 기웠다. 부부가 지극한 돈이 천 달러쯤 되었을 때 친구 이 갑오로부터 불행한 소식을 들었다. 이 갑오 독립비밀결사단 신민회를 함께 창설한 친구이자 동지였다.

이 갑오 러시아에서 엄지손가락이 마비되었는데 뉴욕으로 돌아오다가 전신불수로 변하여 인국을 거절당할 것을 뻔한 아내라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가 병으로 누워 있다는 것이었다. 안창호는 그의 부인과 의논하여 그동안 저축해두었던 천 달러를 치료비로 보내주었다.

그는 반년동안 캘리포니아에서 토목 인부로 일했고, 그 후 1년 동안 미국인이 경영하는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안창호는 국민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그곳을 떠날 때 호텔 주인은 안창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1년 동안 내 호텔에서 열심히 일해 주었으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러자 안창호는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있던 자리에 한국인을 썼으

면 좋겠습니다."

이후 호텔 주인은 그 자리에 계속 한국인만 고용하겠다고 했다.

안창호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왔던 그는 상해의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얼마동안 지방에 숨어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당시 경성지방법원 검사장 중로경찰사에 갇혀 있던 안창호를 신문하였다.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나는 잘못된 일이 없다."

"여기서 나가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다."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잠을 자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이다. 이것은 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결국 안창호는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병이 심해져 경성대법원으로 옮겨졌다가 이듬해 3월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61세였다.

안창호(安昌浩) 1878년~1938년 호는 도산(島山)이다. 18세까지 서당에 다니며 한문을 배웠는데, 이때 팔대(華大)와 알게 되어 인종주의에 눈뜨게 되었다. 이후 언더우드가 경영하는 구세학당(救世學堂)에서 3년 동안 수학하며 서구 문물과 접하게 되었다. 1897년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관서지부를 맡게 되었는데, 이때 평양지회 결성식에서

1900년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공립협회(大韓人共立協會)를 설립하였다. 을사조약체결 소식을 듣고 귀국하여 1907년 이 갑(李甲), 신채호 등과 함께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고, 평양에 대성학교(大成學校)를 설립하였다. 1909년에는 김좌진(金佐鎭), 이동녕(李東寧) 등과 함께 청년학회를 조직해 민족계몽운동 및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였다.

1913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 흥사단을 창설하고, 3·1독립운동 직후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를 맡았으나 1921년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미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수차례 체포되었다. 특히 1937년 6월 동우회(同友會) 사건으로 다시 일본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있다가 12월에 병으로 풀려났으나 이듬해 3월 경성대학부속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신민회(新民會) 1907년을 전후해 일제에 민족계몽운동을 단행하자 윤치호(尹致昊), 안창호(安昌浩), 장지연(張志淵), 신채호(申采浩), 박은사(朴恩嗣), 이동휘(李東輝), 이갑(李甲), 이승훈(李昇薰), 이동녕(李東寧), 이회영(李會榮) 등 사회계몽운동가들이 국민회 복원을 위해 비밀리에 조직한 단체이다. 안창호의 당부로 창립된 이 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 1896년 결성되어 2년 동안 활동하다 와해된 독립부속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신민회는 국권을 회복하여 자유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결성되었는데 정국에 백여명의 회원이 있었다. 이들은 교육계몽운동을 비롯해 계몽강연 및 출판, 민족신선집 등, 독립강령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주요 활동가들이 외국으로 망명하거나 민주독립군 기지로 이주했다. 그러나 1911년 일제가 조직한 '105인'을 계기로 신민회 조직이 드러나고 국내에 남아 있던 세력이 탄압을 받으면서 조직이 와해되었다.

예/술/칼/럼

인간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

많은 배우도 많이 알려진 인간은 자만하기 쉽다. 사람이 아는 것만 믿고 세상을 인식하면 종교에는 믿고 버리고 버린다. 사람이 아무리 안다고 해 보았지만 내면이 허약하고 흔들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책만 한 자식을 씹고다하여 세상에 걸보고 오만과 교만과 독성을 지른다. 그것이 편견이며 독선이다. 마침내 인간의 고집을 뺀다. 그러한 병을 고치는 특효약은 있다.

그것은 진실과 지혜라는 것이다. 지식과 지성은 사람을 알게 하지만 진실과 지혜는 자신을 먼저 알게 한다. 게다가 분수를 알면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을 더하는 것이다. 분수를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돌이켜 자신을 돌도 알게 한다. 우물쭈물 하는 것 보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경우가 사람을 훨씬 더 영롭게 하기에 그렇다.

진실은 사람과 사람을 믿게 하지만 거짓이나 속임은 사람간의 믿음(信)을 깨뜨리는 교묘한 독약이다. 진실과 지혜는 자신을 가능하는 저울이며 잣대이다. 지식은 자신을 오만하게 부추기는 사탄의 성본이 있다. 그러나 진실은 천사의 내림이다. 지식은 보편을 필요로 하는 옵션이지만 진실은 모두의 삶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다. 진실의 조건은 율터머(gut)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의 삶에서 솟는 맑은 영혼일 뿐이다. 이것이 곧 인간적 도덕률의 품성이다.

그러나 문학적 허구에도 또 다른 진실은 있다. 문학예술은 삶의 기쁨과 환희를 스스로 찾아내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문학적

사람의 마음을 황홀경에 빠뜨린다. 황홀경 마음은 사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문학적 허구에서는 방법이 나 거짓을 호위하지 않는다. 그럴법한 일도 이야기로 최고의 선과 미를 세상에 진열한다. 노래를 듣고 춤을 추게 하는 것 또한 허구에서 얻어지는 진실이다.

소설이 다큐멘터리보다 진실이 덜하든 감동은 감동이지만 소설 역시 진실로 감동한다. 황금을 캐는 삽보다 진실을 말하는 동양연필이 더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문학의 허구에도 반드시 진실의 열매를 매긴다.

다만 인간의 진실이 예술이 추구하는 궁극적 내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다. 문학적 진실이 진중에서 깨나는데 진중이란 진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다이아몬드다. 그러기에 인간의 진실은 예술적 진실보다 항상 우선한다.

문학적 진실은 행위적 희망이고 인간의 진실은 본성이다. 인간의 진실은 하늘이 해석하고 문학적 진실은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다. 문학적 허구에서의 진실이 자물쇠라면 인간의 진실은 늘 열쇠가 된다. 거짓은 삶을 찢지만 진실은 삶을 아물게 하기에 그렇다. 인간적 진실은 사람을 만들고 문학적 진실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늑하다. 인간의 진실은 마음에서 나오므로 문학의 진실은 허구에서 나오는 아이러니다. 대개 믿음직한 사람은 진실만을 먹고사는 의로운 친구가 된다.

진실한 항구는 배가 정박하여 짐을 무리하지 거짓의 항구는 갈매기만 죽인다.

또한 진실한 귀는 세소리를 듣고 거짓의 귀는 소문을 듣는다. 말도 마찬가지다. 단 소리는 입보다는 쓴 소리는 입이 더 진실하며 정직하다. 진실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세상을 낚는 법이 없다. 진실은 세상을 만든다. 거짓은 화강처럼 단단한 진실은 화강을 지우려 한다. 이것이 거짓과 진실의 분명한 열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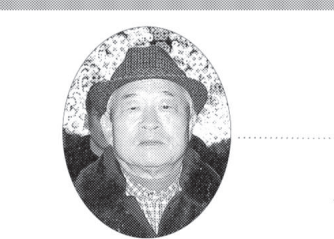
인간적 진실이 사람을 그린다면 예술적 진실은 사람의 품을 그리는 것이다. 예술적 진실이 타이타닉호를 건조하였다면 인간적 진실은 빙하를 녹인다. 사람에게 있는 인간적 진실과 예술적 진실이 함께 있다. 그것은 바로 눈물과 땀이다. 눈물은 사람이 고된 정직한 노동이다. 지나간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산술의 배이었으며 인간의 경계였다.

신은 인간의 노트에 불가능의 해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신은 아직도 인간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

다만 그 선물을 예술적 진실에 희망을 일러 주었다. 그러므로 인간적 진실과 예술적 진실만이 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안기수 시인 제3의문학 발행인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48)

명판관(名判官) '이성구(李聖求)'

'이성구' 대감은 광해조10년(1618) 영평판관(永平判官:포천과 영평을 함께 다스리는 원판)이었다. 판관 당시, 백사(白沙)가 유배지에서 타계하시자, 포천에 모시고 장사지낸 인물이며 광해조10년(1618년) 재임중, 군내면 '반월산성'을 보수하고, 광해조12년 조정의 반제파들에게 탄핵을 당하고 극렬히 반대하였던 '화산서원' 건립을 끝내 완성한 인물이다.

이 '반월 산성'의 보수와, '화산 서원' 건립을 반대한 대산의 탄핵으로 끝내 판관(영평·포천)직에서 파직되는 수모를 당하였으나 포천사랑의 판관으로 포천

역사상 기록되어야 할 인물이다. 이성구 대감의 자는 자익(子翼), 호는 분사(汾沙), 본관은 전주, 유명한 증 영의정 이수광(李壽光)의 아들이다.

선조36년(1603년) 진사시, 광해 원년 별시 문과4등으로 한헌(翰苑)에 들어갔다.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 6조좌랑(6조의 인제계용 최후 기인자), 정랑, 흥문관 교리등 문관으로는 임금에게 사량과 인정을 받는(노른자위) 요직을 거쳤다. 이성구님이 '사헌부 헌납' 부 수관이 '대사헌' 동생 인구는 흥문관에 재직하였으므로 일가 3사(三司)를 맡게 되었다고 칭찬과 놀림과도 같았다 한다.

(이렇듯 명문가 명문문인의 가문이다)

인조반정 이후, 대사간, 병조판서로 왕을 남한산성에 모실 때까지, 대사헌, 경기관찰사, 이조판서를 역임하면서 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며 인조15년(1637년) 사은사(謝恩使)로서 회은군 덕인과 함께 청의 조정 심양에 가서 우 리 조정이 명나라를 칠 원군을 보낼 수 없다는 뜻을 전하는 어려운 일을 완수하였으며 병자후, 왕세자가 청나라 심양에 불모로 끌려갈 때, 우의정에서 좌의정이 되어 어려운 임무를 수행한 외교관이었으며 유공증수이었다. 심양에서 돌아와 영동첨부사에

임명되었고 재차 사신으로 심양 땅에 다녀와서 인조19년 영의정이 되었으나 승지 홍무직 등, 모함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병을 핑계삼아 사직하였다. 이토록 인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다시, 영종추부사에 임명되었다.

그 해에 선천부사 '이계'와 '도신(道臣) 구부서(具鳳瑞)의 청나라에 대한 기밀누설 사건을 논하다가 파면되어 양화강변(楊花江邊) 면류암(眠峯?)에서 여생을 보냈으며 인조21년(1643년) 타계하였다. 시호는 '정숙(貞肅)'이다. 저서로는 '분사집(汾沙集)'을 남겼다.

이성구님은 다른 판관이나 현감, 현령보다도 포천을 다른 유명한 고을의 반열에 올려 놓으려고 무진 애를 쓰셨던 큰 인물이다. '백사 이항복'과 같은 나라의 큰 인물의 묘소를 모시는 대사를 이룩하고 '화산 서원'을 완성함으로써 우리 '포천고을'의 격(格)이 격상되었던 것이다.

초대 漢詩 追慕梅竹軒成三問先生(추모 매죽헌 성삼문선생)



香隱 柳鳳鉉 포천한시사 강사

先生忠節直仁天(선생충절곧은천)追慕欽歎五百年(추모함탄오백년) 선생님의 충절이 하늘에 까지 뻗치시니, 추모하고 흠탄(인격)을 존경하여 찬탄할라. 임이 5백년이라도.

知識高明後學(지식고명개후학)文章卓越繼前賢(문장탁월계전현) 지식이 고명하시어 후학을 열어주시고, 문장이 탁월하시어 전현을 계승하셨네.

心如白日清潭照(심어백일청담조)志似晨星碧落懸(지사신성벽락현) 마음은 백일 같이서 맑은 못에 비치고, 지조는 새벽 별이 하늘에 달린 것.

捨命憂君魂餘在(사명우군혼여재)千秋悲悼頌言傳(추추비도송언전) 목숨을 버려서 임금님을 걱정하니 영혼만 남아있고, 천추를 애도하고 기리는 말로 전하리라.